IBKS Spot Comment

에너지/소재

이동욱

02) 6915-5671
treestump@ibks.com

[에너지/소재]
하르그섬, 이란의 핵심 원유 수출 허브

하르그섬 리스크, 아시아 원유 프리미엄이 흔들릴 수 있다

이란 하르그섬의 전략적 위상은 단순한 유전의 가치를 넘어선다. 이 섬은 이란 원유 생산능력을 상징하는 업스트림 자산이 아니라, 생산된 원유를 저장/혼합/선적해 외화로 전환시키는 핵심 수출 허브이기 때문이다. 현재 하르그섬은 이란 해상 원유 수출의 약 90%를 처리하고 있으며, 올해 누적 수출 170만배럴/일 가운데 155만배럴/일이 이곳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저장능력은 약 3,000만배럴, 3월 초 재고는 약 1,800만배럴 수준이다. 결국 하르그섬의 본질은 생산이 아니라 현금화에 있다. 내륙 유전에서 원유가 정상적으로 생산되더라도, 하르그섬의 파이프라인/터미널/저장탱크/적재설비가 흔들리면 이란의 실질 원유 수출능력은 급감할 수밖에 없다. 업계가 하르그 인프라 훼손 시 세계 원유시장 공급이 하루 최대 200만배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이 섬의 지리적 의미도 분명하다. 하르그섬은 이란 본토 해안에서 약 26km, 호르무즈 해협 북서쪽 약 483km 지점에 위치하며, 이란 연안보다 수심이 깊어 초대형 유조선 접안이 가능하다. 즉, 이 섬의 전략성은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대규모 선적 효율을 갖춘 심해 수출기지라는 데 있다. 최근 전황에서도 하르그섬은 에너지 시설을 넘어 미국의 핵심 대이란 압박 카드로 부상했다. 미군은 3월 14일 이 섬의 군사 목표물을 제한적으로 타격했고, 3월 19일 미 국방장관은 이를 이란을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레버리지 사례로 언급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고레-자스크 파이프라인과 자스크 터미널을 대체 수출 루트로 거론하지만,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실질 수송능력은 약 30만배럴/일 수준에 그치고, 2024년 여름 실제 선적도 7만배럴/일을 밑돌았으며, 이후 사실상 수출이 중단됐다. 결국 자스크는 불완전한 백업 루트일 뿐, 하르그섬을 대체할 주 루트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하르그섬 리스크는 단순한 중동 뉴스가 아니라, 아시아 원유 프리미엄을 재산정하게 만드는 구조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의 이란산 원유 의존, 호르무즈의 아시아향 물동량 집중도를 감안하면, 하르그섬 인프라 위기는 중국 독립 정유사의 원가 상승, 아시아 중질유 수급 불안, 국내의 원유 조달 프리미엄 확대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께서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해 최종 결정하시기 바라며,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림 1. 이란 하르그섬 위치

자료: EB, IBK투자증권

그림 2. 이란 하르그섬 위성 사진

자료: NASA, IBK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없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는 조사분석자료 작성에 참여한 외부인(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등)이 없습니다.
조사분석 담당자 및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상기 명시한 사항 외 고지해야 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